

102. 나는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논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2015.07.30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주님께서 진정으로 저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나는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클레어) 오, 이것은 민감한 주제예요.. 일종의 ‘No go zone(접근하면 안되는 곳)’ 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성찬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내가 이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어? 성경에 최소 7번은 기록되어 있어. 만약 너희들이 너희들의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너희들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나는 성찬식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너희들의 살고 있는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이야.

나는 회의론자들에게 내가 빵과 포도주 안에서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이미 성경구절로 그것을 보여주었어. 이것이 단지 빵과 포도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여정을 위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과 함께 그곳에 있기로 선택하였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요한복음6장56절)’

다른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 이 유튜브 채널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야.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것이 나의 몸과 나의 피이다.’ 라고 한 말에 동의해. 그러나 성찬식에 접근하는 특정한 방법은 다를 수 있어.

나의 신부들인 너희들도 반드시 나의 몸과 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해.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연합하는 것이야. 빵은 육체적으로 너희들의 일부가 되고, 그로 인해 너희들과 나는 하나가 되어져. 너희들은 생산적이 되고 영적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여정을 위해 강화되어져.

만약 너희들이 전례교회에서 왔고 사제로부터 영성체를 받는 경우 이 말을 강화시켜야해. “예수님, 진정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의 파멸로 인한 의도의 부족이 너희들의 고백으로 채워지게 되고 보충되어질 거야.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의 깊은 경의와 너희들의 마음으로부터의 믿음의 선언으로 그 부족함을 채울 거야. 나는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귀하게 여길 거야.

(클레어) 제 생각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날에 정말 많은 종류의 목사와 사제들이 있다는 것이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진심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것을 정말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몸과 피라는 저희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항상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존중해줘. 하지만 성찬식에서 나는 응답할 거야. 너희들 모두가 나와 동의하지는 않을 거야. 너희들은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때에 겉으로는 진실로 보이지만 때때로 내적인 형태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고려하기를 요청하고, 이것은 너희들이 영성체를 받는 모든 교회에서 고려되어야해. 이것은 너희들 모두를 영원히 성화시키는 구원의 신비야.

요한복음 6장53절에 기록되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나는 너희들 각자가 최후의 만찬을 기준으로 너희들만의 성찬식을 설계하기를 원해. 너희들이 믿는 만큼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 질 거야. 상황이 점점더 어두워질수록 나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너희들을 완전하게 강화시키고 싶어. 나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들 중 하나이지만 나에게서는 매우 중요해.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요한복음6장47~51절)

전통적인 환경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처럼 계속 영성체를 받아라. 하지만 만약 그것이 박해로 끝나게 된다면, 경건함과 믿음으로 개인적인 성찬식을 해라. 그러면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보여 질 거야.

나는 나의 신부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해. 나는 이 성찬식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갈망해. 나는 우리가 가능한 모든 방법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갈망해. 성찬식을 통해 내가 너희들의 육체에 들어가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성찬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야.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한 일을 나에게 고백하면 너희들은 받을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마음의 확신을 따르기를 원해. 만약 너희들이 사제에게서 받는다면 계속해서 받고, 믿음으로 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을 기억해라. 비성찬식 교회에서 성찬식을 받는다면 너희들의 양심이 증거하는 한 계속해서 그렇게 하여라. 하지만 믿음으로 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여라.

많은 교단들에서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이것은 오류라고 가르쳐. 진리는 현재로서는 천국에서만 알게 될 거야. 종교적인 영이 성찬식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두지 말아라. 전통에 대해 다투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의 말다툼이 싫어. 다툼은 나의 눈에 더러운 토사물이야. 모여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침묵하고 이웃사랑과 사랑의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 다투는 것은 오직 증오만 만들뿐이야.

참고로 나는 너희들의 양심에 진리들 드러낼 것이지만 너희들은 “나는 바울을 따르고 그의 길이 더 나아. 아니, 나는 베드로를 따르고 그의 길이 더 나아!”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안되.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보여? 오히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진리가 승리할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정한 때에 내가 할 거야.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라.

(재키) 여기에 클레어 자매가 하는 간단한 성찬식의 예가 있어요.

(클레어)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주님께서는 저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가정에서의 단순한 성찬식을 통해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들 방문하실 거예요.

성찬식에는 7개의 매우 짧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찬양, 2감사, 3저희 죄들의 고백, 4성경구절 읽기, 5축복, 6영성체 받기, 7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1. 찬양.. 만약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다면 기도하기 전에 한두 곡의 찬양을 드리세요.
2. 감사.. “주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모든 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서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3. 고백.. “저는 주님과 저의 이웃들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이야기하세요) 하느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따라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저를 용서해주시고 저의 죄들에서 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 하나님, 순수한 마음을 제 안에

만들어주시고, 제 안을 변하지 않는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기꺼이 하고자 하는 영을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4. 성경구절..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빛이니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레마를 받기위해 성경책을 무작위로 펼쳐 성경구절을 읽으시고 큰 소리로 반복하여 그것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하루종일 기억하세요.

5. 축복..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고 식탁에서 빵을 들어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빵을 떼어 (빵을 쪼개세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빵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잔을 들어올려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모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의 잔, 곧 새롭고 영원한 언약의 피이다. 이것은 너희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흘리게 되어 너희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잔을 내려놓으세요)”

6. 영성체 받기.. 영성체를 받으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해주세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말씀만 하시면 제가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저희를 위해 오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성찬식 후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화시키실때 주님과 함께 거하세요.

(재키) 다음은 에스겔 형제가 하는 성찬식의 예예요.

(에스겔)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 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몸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저는 저의 성경책과 작은 빵조각, 그리고 포도주스 혹은 포도주를 가지고 저의 간단한 작은 기도제단에 앉아요. 저는 보통 주님 앞에서 조용해지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마음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여쭙봐요.

그런 후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저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제 성경책을 펼쳐요. 저는 구약성경, 시편, 복음서 이렇게 3번 펼쳐요. 읽는다는 것은 성경책이 어떠한 쪽에 펼쳐지든 펼쳐진 그 쪽의 2장을 보는 것이예요.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눈에 띄거나’ 여러분의 관심을 끌 것이예요.

마치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바로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구절들을 읽으세요. 마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개인적인 편지를 읽는 것처럼, 마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시편23절 - '나의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의 목자이다. 너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와 같아요.

핵심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인용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구절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을 주님과 정말로 소통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끌 것이에요!

저는 성경구절을 읽은 후에 제가 지은 모든 죄들을 떠올리고, 제가 행하고 생각하고 말한 모든 것 혹은 누군가에게 친절이나 사랑을 소홀이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주님께 용서를 구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기도를 하거나 이 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주님께 빵과 포도주를 바치시고 그것에 축복해 주시길 간구하셔서 주님의 소중한 몸과 피를 받으세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주님과 자연스럽게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많은 증인들이 저희를 지켜보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하었어요. 그러니 이 특별한 순간들에 저희들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분열되지 않고 진정으로 연합해요.

저는 저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매우 강력한 은혜들이 내려오고 저희들 안에서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그 은혜들이 보내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주님과 온 몸과의 교제와 개인적인 시간을 통한 진정한 기도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친밀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에스겔 드림.